

## 팬데믹과 개혁교회의 패러다임적 대응\*

### The paradigm's response of pandemic and reformed church

최용성 (Yong Seong Choi)\*\*

강순규 (Soon Gyu Kang)\*\*\*

최병학 (Byung Hak Choi)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respond properly to the church in this crisis era through the search for a reform paradigm in the crisis era of pandemic. To this end, we intend to reflect on the search for a revolutionary scientific paradigm in the era of the Black Death and Corona 19 pandemic from the level of religious and church reformation, and with a converging hermeneutics between the era of the Reformation and the current era. In addition,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pandemic era can be subject to the situationality and power refinement of science, politics, and religious power. The scientific situation in dangerous situation, it proposes an alternative to promote religious paradigm chang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fact that there is a Catholic Reformation, the Church, which has presented a more reformed paradigm for publicity and common good in the public sphere aft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which has been trapped in the paradigm of customary belief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place the paradigm of the Glory and Prosperity Gospel with the theological paradigm of the Cross and Suffering Gospel through the view that the Pandemic Age is a society that amplifies global subjective and social trauma in a more amplified form or like in the 14th-16th century. I would like to present. In addition, I will present the need for resilience through true crucifixion and suffering theology that overcomes the distorted resilience of resilience in

\* 2021년 5월 11일 접수, 6월 10일 최종수정, 6월 11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부산교회개혁연대 종교개혁세미나(2020년 10월 25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시간강사,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wascys@hanmail.net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isoonstar@daum.net

\*\*\*\*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hak-99@hanmail.net

scientific, political, and religious crises that promotes the scapegoat of scapegoat. Finally, in the era of the pandemic, the church must move from the new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Corona 19, the uncontacted society to the pandemic, early church, and biblical paradigm church spatiality beyond the existing Catholic and Protestant spatial paradigm. I would like to present an opportunity.

**Key words:** Words:pandemic, paradigm, publicity, hardship, place

## I. 서론

2020년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14-16세기 중세시대나 있었던 흑사병과 같은 팬데믹(pandemic)은 인류사회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했으나 발생하였다. 그런데 14-16세기의 흑사병 시대는 중세 최대의 위기, 위험시대였고, 인문주의적 르네상스의 흐름 속에서 중세·가톨릭적 세계관 또는 패러다임(paradigm)에서 교회개혁·종교개혁의 패러다임이 모색되었던 시대였다.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회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시대적 위기 속에서 대응하면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일 수 있다. 사실 신종 전염병 유행 주기는 점점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다. 이번에 코로나 19에 잘 대처할 지라도 인류세 시대의 폭발적 인구증가와 그 영향력 때문에 서식처 침입, 생태계 교란 등으로 계속 동물 매개의 코로나19식 바이러스 침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4-16세기처럼 팬데믹이 다시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재현 가능성은 더욱 많아질 것 같다. 마치 기후 위기의 도달이 불확실성 가운데 정상과학, 정책, 규제과학의 무능력 속에서 탈정상과학적 특징을 가지듯 신코로나19의 도래도 그런 불확실성이 있되 보건, 환경, 생명의 위협사회적 혼란과 양상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Vidal, 2020).

그러므로 교회사에서 가장 극심한 트라우마와 회복탄력성이 더디었던 14-16세기처럼 작금의 교회는 과학적, 정치적 위기와 동반하여 신앙적 위기, 위험사회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작금의 종교교들은 이미 위기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적 대응을 하고 있다. 많은 교회, 회당, 모스크, 사원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생중계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Parke, 2020). 태국이나 대한민국의 템플스테이, 즉 관광객들에게 사찰에서 수도원 생활을 체험 할 수 있는 한국 불교 문화단은 그 프로그램을 중단했고(Harmeet, 2020), 이슬람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대모스크를 폐쇄하고 메디나의 성원 알-나 바위에 대한 추가 조치를 추가했으며(Harmeet, 2020), 독일 연방 공화국내 이슬람위원회는 “매일기도와 금요일기도가 없어서 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취소되었고 적절한 대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Harmeet, 2020). 이런 상황에서 2020년 3월의 퓨 리서치 보고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종교적 습관(아비투스)의 변화를 이미 보고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종식시키기 위해 기도했다,” “직접 예배에 덜 자주 참석,” “직접이 아닌 온라인이나 TV에서 종교 예배를 보았다”고 응답했다(Pewsocialtrends, 2020). 많은 종교의 지지자들이 모여 코로나19 유행병의 종식을 위해,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의사와 과학자들이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작금의 종교들이 취하는 태도들은 너무 피상적인 대책들이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Arutz, 2020).

특별히 이런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런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새로운 혁명적 과학의 패러다임(신앙의 경우 개혁적 패러다임)의 모색을 통해 이런 위기 시대에 대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취하게 된 이론적 틀은 교회개혁·일치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가톨릭 중심주의적인 라칭거 주교(교황 베네딕트 16세, Benedictus PP. XVI)와 대비되는 친개신 교적인 가톨릭 신학자 한스 킹(H. King)이 토마스 쿤(T. Kuhn)의 패러다임 개념을 종교, 교회개혁과 기독교의 역사흐름에 대입시킨 관점을 수용하되 한스 킹의 중립적 관점보다는 보다 개신교적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흑사병·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혁명(개혁)적 과학패러다임 모색을 종교·교회개혁적 차원에서 성찰하고 종교개혁시대와 작금의 시대와의 가다머(H.G. Gadamer)적 지평융합적 해석학으로 성찰을 꾀하고자 한다. 또한 팬데믹 시대의 특수한 상황은 과학, 정치, 종교권력의 취약성 및 희생양화를 증폭시키고 과학적, 정치적, 종교적 합리성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의 문제를 펀토위츠(S. Funtowicz)와 제롬 라베츠(J. Ravetz)가 말하는 탈정상과학적 상황, 울리히 벡(U. Beck)이 말하는 위험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팬데믹 시대 종교·개혁적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사사화된 인습적 신앙의 패러다임에 간혀있는 개신교회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공성과 공동선을 위한 보다 개혁된 패러다임을 제시한 가톨릭의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팬데믹 시대가 14-16세기와 같이 또는 더 증폭된 형태로 전지구적인 주관적, 사회적 외상(traum)을 증폭시키는 사회라는 관점을 통해 영광·번영 복음의 패러다임을 십자가·고난 복음의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대체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과학적, 정치적, 종교적 위기 속에서 왜곡된 회복탄력성으로서 르네 지라르(R. Girard)가 말하는 희생양(scapegoat)화를 부추이는 것을 극복하는 진정한 십자가·고난 신학을 통한 회복탄력성이 필요함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의 시대에 교회는 코로나19의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대, 언컨택트(uncontact) 사회에서 기존의 가톨릭적·개신교적 공간성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팬데믹·초대교회·성서적 패러다임 교회 공간성으로 이동해 나아가야 할 기회가 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흑사병과 코로나19의 팬데믹과 패러다임 이동에 대한 지평융합적 성찰

한스 킹이나 토마스 쿤의 관점에서 보면 16세기의 종교개혁적 패러다임은 중세 가톨릭적 패러다임이라는 정상과학적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혁명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연구자는 흑

사병이란 사회역사적 상황의 상호연관성을 주의하면서 종교개혁적·교회개혁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종의 인문학적, 성서해석학적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종교개혁, 교회개혁적 패러다임이 형성되었지만 흑사병이라는 가공할만한 팬데믹적 트라우마에 대응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시의 과학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신앙적 합리성의 붕괴, 사목권력, 목회적 권력의 붕괴를 넘어서려는 회복탄력성의 끈질긴 노력 끝에 형성된 것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이고 교회개혁이었다는 것이다.

팬데믹의 원조는 페스트균에 의한 14세기-16세기 '흑사병(black death)'인데, 당시 과학수준에서는 탈정상과학적 상황의 위험사회적 맥락에서, 과학이나 정치, 교회가 대처를 잘못하면서 봉건사회가 허물어지고, 중세 봉건국가체제와 가톨릭 교회체제는 이미 공공성을 상실하면서 공동선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국가체제, 교회체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톨릭교회의 권력구조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로마제국과 봉건주의의 권력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회가 신뢰할만한 신학적, 신앙적 언어와 신앙적, 신학적 합리성을 잃어가면서 신학 공동체에서도, 점증하는 위기의식은 일반적인 기본전제들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해모델의 돌파구를 열어간 것으로 보인다(Küng & Tracy, 1989: 20). 이런 맥락 안에서 북유럽의 르네상스 혹은 인문주의는 새로운 성경 해석학, 신학적 해석학 등의 패러다임 이동을 통해 종교개혁이라는 종교적 변화의 문화적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흑사병에 따른 르네상스, 종교개혁은 하나의 역사적 운동으로서 종교적 교의, 인문학적, 성서해석학적 갱신만이 아니라 흑사병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종교와 사회 전체의 개혁을 가져온 문화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미지의 다른 사람을 질병의 확산, 유발 또는 착취에 대한 유죄로 악용하는 희생양 찾기의 역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사실 국가 체제나 종교 체제 또는 군중은 곤경으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공동체에서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히틀러 정권의 유대양 희생양 삼기에도 잘 나타나듯 체제위기를 극복할 생각으로 희생양 찾기를 실행한다(Benedict, 2019: 136). 중세 초기에 시작되었던 흑사병이란 스캔들은 11-13세기 십자군 전쟁 때에도 만연했다. 하지만 흑사병은 유럽지역에서 다시 1346-1353년 사이 팬데믹으로 절정에 달했고 중세 국가, 종교체제에서 간간히 발생했던 희생양화도 체제위기와 더불어 절정을 치달았다. 이 시기에 흑사병으로 유럽 총인구의 적게는 30% 많게는 60%가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14세기에 발생한 대흑사병은 원인분석과 해결책에서 많은 한계를 보여주면서 희생양화를 강화시켰다.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6세는 파리 대학 의사들에게 하루속히 발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으라고 종용했다. 사실 당시 로마 가톨릭, 즉 서방교회는 인문학적 수준, 성서해석학적 수준뿐만 아니라 과학적 수준이 동방교회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었다. 예컨대 흑사병을 쥐가 옮긴다는 사실은 19세기 이후에야 발견하였기에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적절한 합리성을 구현할 수

없었다. 물론 흑사병은 중세의 전염병에 대한 미신적 대응을 넘어선 체계적인 의학을 발전시키는 회복탄력성의 기폭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규제, 정책과학 수준에서의 회복탄력성이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흑사병이 냄새로 전염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때문에 사프란(Safran)과 같은 약초나 향료를 태워 공기를 정화하는 처방법을 제시했고, 몸 속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를 뽑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를 막고 병자의 살을 찢어 피를 내는 치료법은 병을 더욱 확산시켰고, 시술을 행하는 사람까지 감염시켰다. 더러운 환경, 잘못된 과학적 합리성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과학적, 정치적, 신학적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규제과학, 정책과학의 수준에서도 흑사병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분석과 과학적 합리성을 찾지 못했기에, 탈정상과학적 상황, 위험사회적 상황으로 함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계의 리더들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들 역시 정치적 합리성을 갖지 못했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어떤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된 신앙적 합리성과 대책도 한계를 노정하였다.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장례미사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면죄부를 주었고, 시신을 해부시켜 흑사병의 원인을 규명하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제들의 빈 성직록이 많아지자, 살아남은 사제들은 이러한 성직록을 챙겼고, 면죄부와 함께 성직록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축재에 혈안이 된 사제들의 타락은 교황의 면죄부 남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이 다시 창궐하자, 흑사병을 막기 위한 예배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많은 재산까지 축적한 교황은 더욱 규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Hubschmid, 1997: 135). 마리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재촉하다가 수없는 이들이 죽었고 환자 주변에 성수를 뿌려 질병을 막으려하던 성직자도 죽는 경우가 빈번하자 성직자도 관리도 그들의 의무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평신도들이 여러 교회의 역할을 대행하기도 하였다(Kelly, 2006: 146-149). 미셸 푸코(M. Foucault)가 말하는 ‘사목권력’ 또는 목자적 권력은 생산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왜곡되게 작동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당하던 평신도들에게 보살핌의 사목권력이 무능·무책임하게 작동되었기에 평신도의 각성과 평신도 운동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교회의 권위와 리더십이 십자군 원정 때보다 더욱 하락되고 신앙적 공론장의 붕괴 및 교회의 공공성과 공동선의 추구가 위기 상황에 놓여졌다. 또한 교회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책임 회피 및 책임전가를 도모하면서 체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마녀사냥과 희생양화가 많아졌다. 위기극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희생양 매커니즘’은 정의에 반하면서 위기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왜곡된 차원에서 회복탄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체제위기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 책임전가가 필요했기에 국가와 함께

함께 교회도 이 희생양 찾기에 동참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전염병은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권력처럼 언제나 권력의 무력함을 폭로해 왔다. 이것은 고대 왕정이나 현대의 민주정에 모두 적용되지만 팬데믹은 가장 과학적으로 강한 국가 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의 무력함을 폭로한다.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의 통치와 생명정치 속에 놓기 시작한 근대국가에서도 팬데믹의 창궐은 국가권력의 무능을 나타내는 체제위기 징표이자 희생양을 부축이는 징표라고 할 수 있지만 중세에는 더욱 그러했다.

13세기까지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리더십의 약화되었던 교황제는 14-16세기에도 교황직의 분열, 성직자와 수도자들 사이의 윤리적 방종 등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등에 의해 부실한 사목권력을 대체하는 평신도의 역할 강화, 만민제사장설 등이 강조되면서 교회의 쇠신과 교회구조의 개혁이 요구되게 되었다. 하지만 기득권을 옹호하는 중세교회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체제를 유지하고 왜곡된 회복탄력성을 악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불행한 사건 이후에 사회는 희생양을 절실히 요구하기에,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유발시켰는데,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내어, 천여 개의 유대교 공동체들을 박살내었다. 물론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문학자는 르네상스적 인문주의를 통해 기존의 신학적 합리성을 비판하였지만 하나의 회심적 사건(conversion)으로서의 결정적 패러다임 변화, 개신교로의 개종은 하지 않았다(Küng & Tracy, 1989: 27). 하지만 한스 쾅(H. King)이 토마스 쿤(T. Kuhn)의 패러다임을 기독교의 역사 흐름에 대입시킨바, 교회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에라스무스에 의해 결정적으로 모색되고 있었다(Küng & Tracy, 1989: 7-8).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이 종교개혁 패러다임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에라스무스는 견고한 성인 가톨릭 체제와 기존 가톨릭 정상과학 패러다임을 루터가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예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신학자 개인의 영적 경험 안에서 개혁적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을 단행하였다(Küng & Tracy, 1989: 71). 물론 신학의 패러다임 변화는 기독교 복음에 기초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변화는 혁명적 단절이 아니라 연속과 불연속의 과정 안에서 개혁적 패러다임으로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독교 메시지가 신학의 패러다임 변화의 불연속적 연속성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McFague, 2001: 60-63).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과학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탈정상과학적 상황으로 함몰되었지만 신앙적 합리성을 구현하는 성서해석학의 패러다임 변화는 당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중세의 4중 의미의 해석학, 알레고리적 성서해석학 패러다임과 단절하면서 동방교회, 비잔틴 문화, 르네상스 인문주의적 전통에서 영향받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학의 통찰 등을 에라스무스가 혁명(개혁)과학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에라스무스의 영향 속에서 칼빈, 쾅빙글리, 멜랑톤, 부쩌와 같은 인문주의자들이 역사적, 문법적 해석학, 또한 오직 성경(sola scriptura)만이라는 해석학적 원리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로마 카톨릭의 공공성과 공동선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신학, 목회, 사목권력 등은 로마 가톨릭적 교회에 대해 종교개혁이란 이름으로, 교회개혁의 이름으로 작동되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청의 교권주의, 사목권력 등에 한스 링과 같은 이들은 비판하고, 라칭거 등은 강하게 옹호하는 편이지만 중세 사목권력의 통제·관리 부족과 보살핌의 부족은 예속적·탈주체적 자아화에 대한 저항으로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키에르케로에게 보이듯 만인 제사장직과 주체화의 신앙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중세 사회와 교회를 바꾸어 놓았듯이,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도 교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고, 과학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외 신앙적 합리성, 사목권력, 신앙의 주체화, 예배공간의 새로운 변화 등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팬데믹 시대 종교개혁적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는 대안

#### 1. 사사화된 인습적 신앙을 넘어 공공성과 공동선에 기여하는 교회 패러다임의 개혁

코로나19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가 아닌 탈정상과학적 위험사회, 보건의료, 의료, 생명 등이 이슈화 되는 후기현대사회, 4차산업혁명시대, 언컨택트 사회 및 후기 세속사회에서 공공성과 성숙한 시민성을 갖추어야 할 기독교가 어떻게 공공성(publicity)과 공동선(共同善·the common good)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게 한다. 사실 한국 개신교의 경우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개교회주의, 가족, 개인중심의 사적 신앙이 강화되어, 복음의 영적, 사회적 차원 모두를 포괄하는 공동선을 일구려는 노력이 미흡한 차원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민주화 이후 점점 약해지는 국내전도와 교회성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개교회 성장에 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개신교의 공공성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영향력이 하락한다는 것은 복음전도와 개교회 성장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민주화시대 이후 한국 개신교의 양적 부흥, 교세 확장 등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의 교회의 대형화 등으로 피상적으로는 교세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 있었다고는 힘든 차원과 함께 실질적 양적 성장에 있어서 민주화 이전의 성장과 같은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예컨대 민주화, 환경, 평화, 여성, 양극화 해소 등 공적 공론장의 공적 이슈에서 공공성과 공동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의 사사화와 인습적 사고를 넘어설 필요성이 있었다.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확대된 기독교적 자아정체감과 공적 영역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탈인습적 사고와 과학, 정치, 신앙 영역에서의 소통 가능한 신앙적 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요청되었다. 한국 성도들은 개교회 중심적인 교회 안에서의 윤리를 넘어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 정의와 공공성 그리



공동선을 추구하는 탈인습적, 성숙한 신앙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유사 크리스텐덤 사회가 아닌 한국의 세속사회에서 카사노바(J. Casanova), 트레이시(D. Tracy), 하버마스(J. Habermas)가 강조하듯 세속화에 함몰되기보다 오히려 공론장(public)에서 종교의 규범적 영향력과 책임감이 요청되는 사회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가톨릭이 선전하는 차원이 많았다. 최근에 프란시스코 교황은 공동의 이익과 공동선 추구로 코로나19를 이겨내야 함을 강조했는데, 사실 가톨릭의 경우 오랜시간 동안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면서 일치를 이루고, 복음주의, 타 종교와의 대화에서도 적절한 공적 담론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발전시켜왔다(박수정, 2020).

또한 가톨릭 교회는 베네딕트 16세나 프란시스코 교황, 한스 쾅 등이 강조하듯 공동체의 상호참여적 삶에서 공공성에 참여하고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는 차원을 발전시켜왔다. 물론 이런 면은 사사화(私事化)된 신앙을 넘어 세계화된 맥락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공적 주체로서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이나 레슬리 뉴비긴(L. Newbigin)등의 여러 개신교 공공신학자들에게서도 강조되어왔다(Moltmann, 2009: 10; Newbigin, 2007).

하지만 한국교회의 경우 공적 영역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차원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신학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에 신천지 사태, 사랑제일교회 사태, 인터콥 선교회, 부산세계로교회 사태 등에서 드러나는바 심각한 교회의 실패가 있었지만 교회가 정치적으로 방역실패의 분풀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적 희생양화가 진행되었고 공공의 적이 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국가나 미디어는 팬데믹 상황에서 특정집단을 희생양삼고 싶어하며, 야당은 대통령, 정부와 여당을 희생양 삼고 싶어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희생양화가 많이 진행되었던 것이 개신교였다. 물론 개신교 중 일부 개교회들은 실제적으로 방역 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선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여러 사태들도 보여주었다. 한국 교회는 천주교나 불교같이 중앙집권적인 컨트롤타워 없이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운영원칙을 결정하는 개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이 현장 예배자제를 권고해도 따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신자 이탈을 우려하는 중소형교회는 직접 모임을 추진하는 경향이 많았다. 특별히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군소교단 연합기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3월 31일 “정부는 예배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내용의 정부 희생양 삼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곽영신·권영지·윤재영·이나경·김성진, 2020: 4. 9). 이것은 정치성향, 이념,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행위를 교회의 이름으로 공론화한 것이지만 공동선에 반하는 진영논리가 묻어있고, 정부를 희생양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나 오히려 방역의 책임에 대

하여 희생양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런 공론장(the public sphere)에서의 개신교회의 희생양 당하기와 개교회적 분열과 파열음, 공공성과 공동선에 이바지 하지 못하는 양상은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공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별거벗은 공론장에서 자신의 신앙 전통에 따라 모두가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윤리적 본질을 선언할 수 있고, 교회는 합리적 담론을 통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성을 선포할 수 있는가? 사실 가톨릭은 1962년 요제프 라칭거 주교와 한스 쾨링 등이 참여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공성과 공동선을 위한 보다 개혁된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한국 가톨릭 교회 역시 종교·교회개혁적 패러다임을 따르면서 이것을 점점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는 팬데믹 현상과 관련하여 내부 분열이 심하고, 개교회주의의 현실을 극복할 회복탄력성이 약한 점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각 교단 총회는 자기-정체성을 강화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고, 이러한 정체성 강화의 노력들은 타자를 배제하는 가운데 교파주의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면서 공론장이 파열되는 경향성이 있으며, 의사소통적 합리성, 신학적 합리성을 담보한 공공성과 공동선의 담론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보인다. 특별히 다양한 교파내, 개신교 기관들, 또는 미디어들 사이에서 정보화, 다원화, 다중문화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오히려 자신이 동조하는 주장만을 들으며 허구적(상상된) 위안이라도 얻으려는 확증편향 심리와 과도한 확신, 믿음도 강화됐고 한국의 언론들도 각 진영이 활용 가능한 공식 매체와 비공식 매체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며, 시민적, 신앙적 판단을 진영논리의 틀 안에 가둬버리려는 비가시적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양 진영에서 상호 간에 행해지는 비난과 도덕적 심판의 언술이 공공성이나 공공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이진투구(泥田鬪狗)의 성격도 있어서 소통이 힘든 이념 대결의 그람시(A. Gramsci)적 진지전적 성격이 짙고, 흑사병때처럼 희생양화, 타자화 현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성도 보였다.

이런 양상 속에서 전광훈 목사와 같은 카리스마적 목회자가 신뢰성없는 주장들을 남발하면서 더욱 위협을 증폭시켰다. 예컨대 코로나 감염이 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으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전광훈 목사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등의 선동으로 교인들을 무작정 교회로 불러들인다면, 이것은 14-16세기 중세 흑사병 시대의 교회의 대처 실패가 제공한 것과 같은 신학적, 신앙적 합리성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개신교의 경우 사사회된 인습적 신앙을 넘어 존재하는 신앙, 즉 신앙은 사적인 삶을 위해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a public)에 직면해 참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공론장에서 대화와 함께 소통해야 하는 것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신학과 신앙의 자리를

교회 바깥에 두고, 시민사회에서 신학 담론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 같다. 사회변동과 교회 변동을 동일 궤적으로 읽으면서, 교회 바깥, 시민사회와 광장에서 신실하게 반응해야 해야 한다. 교회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조된 공공성 요구를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신앙표현으로 담아 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신교회는 서로를 희생양 삼거나 진영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공공성과 한국 사회의 ‘공동의 선’을 위한 문화적 자원으로써 그 공적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대답해야 할 과제를 남기게 된 것이다.

사실 기독교 윤리적으로 보면 현장예배, 대면예배 등으로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내려놓고, 종교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타인과 이웃을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공동선을 구현하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본회퍼(D. Bonhoeffer)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 진정한 교회이다’라는 책임 윤리의 태도이며, 모두를 위한 공동선의 윤리가 될 수 있다. 공동선은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생각하는 윤리적 덕목이다. 공공성에 대한 공공연한 논쟁을 회피한 인간은 개인적 미덕이라는 피난처에 도달하지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배제에 눈을 감아버리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선, 즉 ‘사적인 선’(private good) 보다는 ‘공적인 선’(public good)을 중시하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선 윤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행위인 것이다. 마이클 샌델(M. J. Sandel)의 정의론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기주의와 교회안의 제자도를 넘어서서 공적 영역에서 시민적 덕성과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한국교회가 되려면 특정 단체나 교파의 신학적 입장을 넘어서, 공론장에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선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사회적 맥락에서는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속의 민주주의의 공간, 공론장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신앙적 맥락에서도 합리성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론장 이론’은 하버마스의 논의로 시작되어 현대의 공공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과학적 공론장 외에 데이비드 트레이시, 볼프강 후버(V. Huber), 미로슬라프 볼프(M. Volf), 리코르(P. Ricoeur), 찰스 테일러(C. Taylor), 호세 카사노바 등이 강조하는바 신앙적, 정치적 공론장에서도 보편성 합리성을 추구하되, 종교의 사유화를 넘어 속의 민주주의의 형태로 공론장에서 합리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Casanova, 1994).

트레이시가 강조하는바 하버마스의 초기 공론장에 관한 관점이 기독교적 전통이 지닌 폭로적, 해방적 가능성,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간과하는 오류가 있기에,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의 공론장에 기독교회의 사회적,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참여해야하는

것이다(Tracy, 1992: 38-42). 예를 들어, 하버마스를 비판하면서 트레이시는 종교, 특히 기독교가 단순히 “사적인 고통의 완화”로 축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그것은 글로벌 사회를 “문명화” 하는데 필요한 규범적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하버마스 역시 ‘의미의 저장고’(Reservoir of meaning)가 될 수 있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Habermas, 2002; Meyer, 1995: 371-395). 따라서 교회의 경우 공론장에 참여하되 개교회주의에 함몰되기보다 신학적, 신앙적 합리성을 재고하고 성찰하는 소통행위를 통해 일반 기관의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선포하고, 공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일을 고민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차원에서 공공성과 공동선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D. B. Forrester, 1989: 52).

한국교회의 경우 복음이 가지는 사적 특수성과 함께 공적 보편성을 잘 드러내어야 하는데, 공공성과 공동선에 대한 성찰 없이 중구난방식 대응과 보편성이 결여된 많은 투쟁, 갈등과 불일치를 양산하기도 했다. 때문에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로 슬라브 볼프가 제안하듯이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를 수용하되, 자기주장의 난립보다는 타인의 의견, 다른 교파, 종파의 해석학을 경청하는 ‘해석학적 환대’를 실천하면서 소통 및 신학을 통해 신학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Volf, 2011: 136). 특별히 교회는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토마스 쿤이 말하는 바 통약 불가능성한 차원이 있지만 열린 신학은 사회적 언어를 차용하고 습득해, 사회와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 평화, 지혜를 두고, 성경에 기초한 교회의 공공성 추구를 겸손하고 성실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트레이시의 수정주의적 모델(revisionistic model)이 제시하는 것처럼 모든 관점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모든 것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면서 보다 공공성과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소통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파편화한 삶의 정황들, 균열과 반목, 권력의 불균형으로 가득찬 현실이 때때로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야 하고, 자신들의 언어에 갇혀 도덕적, 규범적 권위를 상실해가지 않도록 코로나19로 촉발된 환경·생태·보건의료적 문제도 교회가 책임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서 방역 당국 지침을 ‘종교 탄압’이라고 보고, 신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어설픈 신학·정치적 발언은 신앙적 합리성의 보편성과 정치적 합리성의 보편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능한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이익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기 보다 공적 가치를 말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를 돌보면서 이웃사랑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신앙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성해 가야할 것이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폐쇄적 신학 담론이 일반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공적인(public)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 신앙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도록 노력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맞는 제자도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민

주적인 가치를 함양한 유능한 시민이 되도록 목양해야 할 것이며, 교회는 자신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항상 세상 안에 존재하며 세상의 한 부분으로 존재함을 깨닫고, 신앙적·과학적·정치적 합리성을 고양하면서 공공성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적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K. A. Cahalan, 2005: 67-73).

## 2. 영광과 번영신학의 패러다임에서 십자가-고난신학의 패러다임을 통해팬데믹 트라우마 사회에서 진정한 회복탄력성을 보여주는 교회

중세 스콜라주의가 가졌던 세속적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는 영광의 신학은 오늘날 번영과 성공위주의 설교에도 가득차 있다. 오늘날 번영주의적 복음주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 인간 내부에 적용되는 과학기술을 통해 수퍼 웰빙, 안티 에이징(anti-aging)과 건강, 영생, 탁월한 지적 능력(super-intelligence)을 추구하듯 복음을 내적으로 적용해서 수퍼 웰빙과 영생과 치료와 건강, 영적 능력(힘, 재력,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조엘 오스틴(J. Osteen)과 로버트 슈러(R. Schuller)의 목사님의 번영의 복음에서 잘 나타나듯 십자가의 은혜와 칭의, 영혼구원,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감 보다는 인간 승리, 사업성공,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필요하며, 또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영광의 신학에 대항했던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 등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에 의해 발견된 영성적 패러다임은 약해지고 있다.

중세의 경우 세속의 번영과 성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던 영광의 신학 패러다임은 11-13세기까지의 십자군 전쟁에서 약해졌고, 14-16세기의 흑사병 팬데믹 상황에서 패러다임적 위기를 맞았다. 지금의 팬데믹 트라우마 상황에서도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학은 패러다임적 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는 전세계적 팬데믹 트라우마 사회, 코로나 트라우마 사회에서 인간의 성공이나 번영의식이 깨어진 고난, 십자가 의식으로 이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울리히 벡(U. Beck)이 말하는 위험사회의 위험이 탈지역화의 세계화를 이루되, 제 1차, 2차 세계대전, 경제공황, 아우슈비츠, 9.11테러 등보다 더 글로벌하게 그러면서 전지구적 로컬에 트라우마적 팬데믹을 제공하는 현실에 잘 반응해야 한다. 오늘날의 팬데믹 시대가 14-16세기와 같이 전지구적인 주관적, 사회적 외상(trauma)를 증폭시키는 사회가 된다는 점, 사회는 이런 외상의 시대에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희생양화를 부추기는 시대가 되겠지만 교회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하는 십자가 신학의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는 교권과 수량으로 자칭 큰 자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가난함과 청결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임하실 가능성이 크며, 재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트라우마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와 고난의 신앙에 임재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히 보건의료, 경제적 회복탄력성 등 거의 모든 영역의 회복탄력성이 더딜 수 있는 시대, 즉 V자, U자, L자로 회복탄력성이 지체되는 팬데믹의 시대에 교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되 교회의 교회됨,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깊은 교제와 보살핌, 사랑을 통해 회복탄력성과 외상후 성숙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공공성을 철학적 입장에서 '정당한 담론의 장'으로서 이해한 하버마스의 공공성 개념이나 이에 대한 신학적 응답으로서의 후버의 공공신학 등을 통해 공공성과 공동선의 신학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커 파머(P. J. Palmer)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를 역설한 것을 들을 필요가 있다(Palmer, 2012: 23). 특별히 코로나19시대는 코로나 트라우마 사회를 양상할 개연성이 있기에 파머가 말하는 비통한 자들,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자들, 외상과 힘든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팬데믹 사회에서 비통한 자들은 9.11테러 때 처럼 인간적 한계상황과 초월성을 향한 가난한 마음 가운데 교회의 양적 부흥이 있을 수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트라우마를 통한 인간 내면의 성숙(외상후 성숙)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차원보다 교회는 비통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살핌, 사목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트라우마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초월자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

흑사병 시대에 하위계급의 성직자들은 끊임없이 교구민들과 접촉해야 했기에 큰 희생을 치렀던 반면, 대다수의 주교들은 병자와의 접촉을 기피하면서 기대되던 적극적인 보살핌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 시기 비통한 자들과 함께해야 할 교회의 사목권력들이 오히려 아비뇽 유수(1309-77)와 3명의 교황이 동시에 분립한 교회의 대분열(Schisma, 1378-1417)로 보이면서 그들의 영광의 신학의 민낯을 보여주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사목권력집단에 대한 회의와 함께 평신도의 각성, 만인제사장직의 필요, 신앙적 합리성의 붕괴, 공론장의 붕괴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성, 교회개혁을 통한 교회의 회복탄력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다른 차원에서 미셀 푸코가 말하는 '사목권력' 또는 목자적 권력이 가장 건강하지 못하고 약화되었던 상황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목권력 또는 목자적 권력은 '보살핌'과 '통제(관리)'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는데, 양떼들의 통제(관리)와 '보살핌'의 축이 상당히 무너졌을뿐만 아니라 양들로부터 신뢰감을 상실당한 시대였던 것이다. 교회도 황제도 가족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평신도들이 서로를 위해 연대하고 조직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팬데믹 시대에 교회는 번영과 성공을 찬양하는 영광신학의 설교를 바꾸고 인내와 나눔과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 신학을 설교하고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종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신뢰를 저버린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교회는 성도들이 에라스무스나 종교개혁자들의 만유제사상적 주체, 키에르케고르적 신앙적 주체성으로 성장하도록 보살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적 주체성은 고사하고 갓난 아기와 같았던 예속적·탈주체적 성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보살핌의 부재를 낳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루터나 쾰링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성도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 자기 희생(고난)을 감수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사제와 교회 중심이라는 중세 가톨릭적 직제를 어느 정도 넘어서면서 건강한 사목권력과 보살핌으로 양떼들을 돌보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실 종교개혁 이전 모든 것을 신의 섭리라고 치부하기에는 죽음과 고통이 무서워 양떼를 두고 도망치는 신의 대리자들의 치졸한 모습이 많았지만 본회퍼가 말하는 타인을 위한 교회로서, 공공성과 공동선에 이바지하되 이웃과 타자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고자 했던 이들이 루터나 쾰링, 칼빈이었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영광의 신학을 이룬 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 붕괴시켰는데, 십자가 고난의 신학 가운데, 전염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재난에 처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 성도들을 돌보며 섬겼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나 딸, 자신이 실제로 자신이 감염되면서 이웃들을 돌보았고, 교회개혁을 함께 하면서 이웃들을 돌보았다. 그들은 카톨릭과 맞서 교회개혁을 추구하면서도 따스한 보살핌으로 약한자들을 위했고 전염병과 용기 있게 맞섰다. 강도만난 이웃의 곁에 서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감내하면서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할까? 각 사회와 공동체는 재난에 대처하게 될 때 그 사회의 취약성과 품격(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드러나는데,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타자를 희생양 삼고, 책임전가를 할 수 있지만 바른 방식으로 회복탄력성을 보일 수 있다. 흑사병때 교회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매우 취약하고 어려운 시대에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잘 대처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 삼기보다 하나됨을 추구하되 자신의 죄성을 인식·인지하고 스스로가 얼마나 추한 민낯을 가진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회심은 교회와 기독교 언론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내부적 고뇌, 내부적 반성, 내부적 회개, 내부적 숙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감의 공론장을 확대시키면서 신앙적 합리성을 보다 고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픈자들에 대한 공감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별히 교회는 교제를 통해 공감하고 고통에 대해 애통하고 서로 감사와 격려로 복돋는 공감의 공동체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론장에서 합리성을 추구하고 설명을 원하는 기독교 합리주의자가 되기 이전에 성경적 통곡의 전통을 회복하고 같이 애통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Wright, 2020). 이렇게 성서 전통의 구조에 짜여진 애도의 요점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전히 무능력함의 배출구를 넘어 하나님도 공감하시면서 한탄한다는 것이다(Wright, 2020). 바울도 우리 자신이 온 피조물의 고통 속에서 공감하시면서 신음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신음하는” 성령에 대해 말한다(Wright, 2020). 피조물들이 당하는 고통은 새로운 구원의 날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다. 이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혐오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리스도인은 세

상의 고통에 동참해서 예수가 말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사람들이다. 탈정상과학적 상황에서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합리성 안에서 온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더욱 애통하고 기도하고 한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소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심지어 자기 고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의 사랑이 거할 수 있는 작은 성지가 되는 것이다(Wright, 2020).

몰트만도 하나님은 이 세계의 재난에 대해 무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한에 대해서 공감과 사랑으로 대하심을 강조한다. 성서의 하나님은 무감각한 하나님(Deus Apatheticus)이 아니라 깊은 공감과 끈끈한 정, 측은지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공감의 하나님(Deus Sympatheticus)이시다. 회랍사상의 영향을 받은 아퀴나스식의 무감정의 신, 스콜라신학의 지성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역사성 안에 동참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자기 비하와 자기 낮추심을 통하여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Moltmann, 2007: 205), 십자가에서 함께 상처받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더욱 기도하고,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공감 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고립된 사람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 고통 속에서 연대하여 하나되는 사랑은 버림당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연대 고통으로 다가서게 하는 신앙인데, 재정적 어려움과 여러 고난 가운데서 신정론적인 질문 앞에서 고뇌하는 이들에게 교회는 공감과 치유, 회복을 통해 신앙, 외상후성숙까지 도모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Moltmann, 2007: 205).

특별히 보건의료, 경제, 정치 등 여러 영역에서 회복탄력성이 더딘 상황에서 외상후 성숙과 회복탄력성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과 2021년의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며 트라우마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트라우마는 2021년과 2022년 역시 지속될 수 있다. 완전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2025년까지도 아니 장기적인 외상 가운데 시달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면 건강한 관계나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을 통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계속 그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방치한다면 강력한 탈정상과학적, 위험사회적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흑사병때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될 수도 있다.

탁월한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S. Hauerwas)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고,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 고백하지만(하우어워스, 2016: 375), 우리는 답없는 길 가운데 더욱 힘들어하고 좌초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이데거(M. Heidegger)의 말처럼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인데, 다양한 실존들이 다층적으로 저주같은 코로나19에 지옥적으로 내던져짐 가운데 있다면 덕윤리학자 알래스테어 맥킨타이어(A. MacIntyre)의 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이야기들의 일부로 존재하는가’라는, 보다 앞선 질문이 해명될 때에 비로소 대답”될 수 있다는 성찰을 기억해야 한다(MacIntyre, 1997:



156). “이때 우리는 절망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좇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그 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우어워스가 강조하듯이 트라우마 가운데도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트라우마 가운데서도 덕스런 인간을 양육하는 덕의 학교이어야 할 것이다(하우어워스, 2010: 168-17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과 일치되는 가운데, 규정되어지는 성품을 가지면서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Hauerwas, 1981: 227). 이것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교회의 존재됨, 기독교 내러티브, 덕스러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회가 성서에 충실한 이야기를 삶으로 회복되고, 그 이야기 안에서 회복탄력성과 외상후성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기존 가톨릭적·개신교적 공간성 패러다임을 넘어가는 팬데믹·초대교회·성서적 패러다임 교회로

예배당에 가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코로나19시대에, 팬데믹 시대에는 예배당의 장소성과 공간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언택트 사회,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성을 가지면서 성서적이고 초대교회적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적응적 차원에서 보면 모든 종교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불가피하게 기존 예배를 온라인 네트워크로 확장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 웹 사이트, 동영상, 유튜브 등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주도적인 회복탄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회는 창조의 하나님, 상상력과 창의력을 주시는 그분을 의뢰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물리적 모임 밖에서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으로 ‘온라인 접속’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성스러운 장소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보다 성서적인 패러다임의 장소성을 구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는 장소, 물리적 건물 자체에 대한 이상숭배적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장소성과 공간성 속에서 신앙적 성찰성을 발견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예배나 교제, 제자도, 사역과 봉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소성, 공간성에 기반한 신앙적 실천 또는 공동체적 아비투스(Habitus, 습관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시대는 4차산업혁명과 언택트 사회를 촉진하면서 교회의 경우 기존 교회 공간의 패러다임에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이끌 수 있다. 1, 2, 3차 산업혁명 시대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선호되었던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방식은 올드한 공간과 장소성의 점유 예배방식일 수 있기에,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없게 만드는 예배방식일 수 있다. 이제는 무한한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예배 등 디지털(digital)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종교 공간의 공간성과 장소성, 기능성, 지위, 역할, 사용 및 표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요 사회 경제적, 인구 통계 및 도시 변화를 반영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패러다임을 지니면서

변경되어왔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Vincent & Warf, 2002: 30-51; Dwyer, 2016: 758-762). 사실 주님은 ‘제자화’된 우리를 통해 장소성을 초월하여 어떤 장소성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성서적 패러다임을 일찍이 예비하셨다(요 4:20-24).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시며(마 18:20), 주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후 3:17).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줄곧 이어 온 장소성에 대한 성서적 패러다임이다. 초대교회의 경우 로마제국의 외압 가운데 기독교가 국교화하지 않은 시절에 ‘카타콤’(Catacomb)에서 함께 모여 은밀히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나 다양한 도피처, 가정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도 장소성을 초월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거의 16세기까지 전염병 등으로 죽음을 상시적으로 경험했던 중세 교회의 패러다임에 대치되게 된다. 중세 교회의 장소성 패러다임은 대개 저세상 지향적이며, 구약적·사제 지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고딕 양식에서도 나타나듯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승배자들을 하늘로 가는 여정으로 데레가도록 설계되었으며, 세속 세계를 뒤로하고 사제 중심의 제사양식(다소 구약적인 차원도 보여짐)을 보여주는 대제단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적 양식을 추구했다(Duffy, 1992).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 교회의 장소성의 패러다임은 제단중심, 성직자 중심의 공간성, 장소성을 획일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6세기의 유럽에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에, 점차 제단을 없애고 설교단을 우선시하는 교회 공간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흑사병 시대의 신앙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북유럽의 인문주의적, 언어, 해석학적 성찰(오직 성경으로)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특성은 영국의 18세기와 19세기의 예배당 디자인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패러다임이다. 예배 경험을 중시했지만 제단보다는 성경, 교리, 언어적, 해석학적 성찰성을 강조하는 설교단, 강단을 우선시하는 특성을 가졌다. 그러나 작금의 많은 대중적인 교회들, 감리교, 성결교단, 오순절 교단 또는 보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종종 예배 밴드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부채꼴 모양의 무대 공간을 특징적으로 가진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개신교의 교회들은 종종 교제와 관계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특징을 보여준다(Kay, 2007). 그러나 이제 특정 건물 장소성에 치중한 ‘외형적 교회주의’는 쇠락하고 오히려 디지털 시대,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인프라 공간’을 확충하는 장소성, 공간성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성은 세속적인 회사나 가정과 접속되는 하이브리드(hybrid)적 특성이 강화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성서적, 초대교회의 장소성 초월의 패러다임으로 회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Zoom 및 Go To Meeting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지원되는 완전한 대화형 서비스는 시각적 상호 작용을 허용하면서 예배를 대화식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것이 4차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19의 언택트 사회 속에서의 예배 패러다임일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의 예배방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

디어 대응력을 갖추고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체질의 교회들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로마 가톨릭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주요 종교 전통에는 예배를 위해 구별되는 ‘성소’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은 이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특별히 성서적, 초대교회적 패러다임은 예배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예배 경험의 신성함을 인정한다. 예배는 거리, 직장, 집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패러다임이었다(Phelps, 2017).

교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코로나19시대, 언택트 사회에서 교제의 경우 교회공간성에 집착하면서 조직 내 모임(gathering)을 하는 것에서 연결(connecting) 중심의 교제 공동체로 바뀌는 것이 초대교회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예배자들의 공동체 내 사회적 몰입에 대한 뒤르케임(E. Durkheim)식의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Durkheim, 1912; Stroope, 2012: 273- 298). 샘 해리스(S. Harris), 리처드 도킨스(R. Dokins)와 같은 신무신론자들은 종교를 초자연적 동인에 대한 일련의 믿음과 교리체계로 보고, 이런 믿음 및 교리체계의 비합리성을 논박하려고 애쓰나 사실 종교는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또다른 기본적인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초대교회때도 그런 특성을 가졌다. 때문에 소속감을 깊이 고려하되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독특한 장소 기반 소속감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이제 지역화된 공간성과 장소성을 고정화하는 차원을 넘어,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소속감, 공간성, 장소성을 넓혀 가야 하는 것이다(Hamdouch, Demaziere & Banovac, 2017: 456- 471). 소속감을 제공하는 공간과 장소성은 항상 재생산되고, 항상 ‘건설 중’이며,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장소성은 사도바울이 선교적 교회개척의 맥락에서 그렇게 했듯이 방탄소년단이 기존 미디어공간을 넘어 유튜브 공간을 만들어가듯이 사실상 혼성화(hybrid) 과정, 경계의 재협상에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성과 장소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Dora, 2018: 44- 71). 이것은 교회가 공동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서로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집단임을 강조하되 교회 건물의 물질적 공간을 넘어 소속감을 제공하고 깊은 교제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교제는 선교적 차원과 연결되면서 로컬내 개교회내의 연결적 소속감을 넘어 전지구적 다중접속(multi- junction)이 함께하는 전지구적 선교의 소속감을 가진 교제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도의 모임’이라는 교회의 본래성은 지속시키되 조직 내 모임보다는 연결중심의 모임이 확대되고 사랑이 실천되고 소속감을 드러내되 선교적 교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성도들이 회합하는 교제와 행위 없이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진면목과 실체를 알 수 없기에, 예배 방식에서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교제에서도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개교회내 소속감과 전지구적 교회의 소통이 선교적으로 확대되는 교제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교회됨의 고유한 본래성을 침해·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교제가 확대되는 방향성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적 상황에서 만약 온라인 예배만이 작동된다면 교제와 모임, 선교적 공동체성이 결여되는 교회 기능의 통합성 상실이 야기될 수 있기에, 상황지, 실천지(pronosis)를 발휘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예배에서 결여된 교제와 선교 문제를 온라인 교제나 오프라인 교제를 통해 회복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오프라인 교제의 활용성을 강화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 교제 실효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교제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점차 익숙해 짐을 통해 젊은 세대처럼 온라인을 통해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아비투스(abi-tus)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습관은 행동의 규제와 관련이 있으며 (영구적 이라기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계획, 도식 또는 인식, 개념 및 행동 구조의 체계이기에 아비투스는 서로 다른 ‘필드’를 함께 연결하면서 아비투스화해야 할 것이다(Bourdieu, 1990: 53). 온·오프라인을 대립적으로 보기보다 통합적으로 보되 점차 온라인 기능을 강화하는 교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경제, 재정적 회복탄력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짐으로 인해 교회 회원들이 생계 손실로 인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재정적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1990년대 이후 교회 건축 붐이 일면서 교회당 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대형교회화의 지향이 대세가 되었던 양상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재정압박 속에서 건축 및 사역자 고용 비용을 줄이고 지혜롭게 사역하는 연결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것도 초대교회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이다. 목회자나 개척교회를 하는 사역자의 경우 따로 건물공간으로서의 교회를 소유할 필요없이 가정에서 사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사의 집이 임시 교회가 될 수 있고, 다른 성도의 집이 교회건물이 될 수도 있다. 거실에서 서비스의 원격 스트리밍이 발생하여 사실상 교회 회원과 비회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공간이 제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목사의 집에서 인도하는 ‘거실’ 예배를 통해, 굳이 피아노가 없더라도 가정용 키보드나 기타를 동반한 노래와 함께 본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관련해서 반주자들이나 음악가들이 성가대를 대체해서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집에서 직접 촬영한 성도들의 큐티 리뷰나 독서 리뷰, 다른 영상편집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성도들의 집 안에있는 가정은 교회와 연결된 성스러운 공간으로 개조될 수 있는데, 이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적응적 패러다임이자 초대교회적 패러다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존에 교회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평일에는 집에서 예배나 교제, 기도회, 제자훈련을 인도하고 주일에는 성도들에게 일요일 예배를 생중계하는 투트랙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더 능숙해지면 매주 예배 패턴을 계속해서 재창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과 예배 공간, 교제, 교육공간의 경계를 흐리거나 허물 필요가 있다. 이때 가정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멀티스케일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Blunt, 2006). 가정에서 가상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은 가정이 종교적 기능과 세속적 기능을 통합하는 다른 형태의 인프라 장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신학적 신념과 공간 사이의 교차를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가상 서비스의 경우 두 가정이 공동 예배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일시적인 '신성한' 공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공유 예배는 지역화와 함께 세계화 모두에 작동된다. 또 다양한 사역에서 개교회는 초점을 가지는 사역을 하고 이것이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지만 개교회는 사역의 단순화와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로컬(local) 사역이 선교중심의 글로벌(global) 선교로 나아가는 경향성이 있었다면 로컬에 집중하면서도 다중접속하는 글로벌한 선교 또한 다중접속 트랜스 로컬의 사역으로 나아갈 것이다. 물론 글로벌에서 로컬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 다른 나라 선교지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도 있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한 사역, 또는 트랜스글로벌한 사역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교회가 교인들 삶의 중심이 되었다면, 또한 대형교회들 속에서 세대별로 구분된 예배가 확장되고,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면, 이제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개교회적 프로그램이 소통되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소통 및 확장이 한계없이 제시될 것이다. 또한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교인이 그만큼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편견이 사라지고 개교회들이 소통하면서 기존에 약해진 공교회성이 더욱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대형교회는 말할 것 없이, 중형교회 목사들도 제왕적인 목회를 성공적인 모델로 여기는 일이 생겨났지만 권위주의적 사목권력이 약화되면서 예측적 주체가 아닌 만인제사장적 주체적 신앙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교회는 이제 개인과 가정이 예배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되도록 그 일을 돕는 역할로 전환될 것이다. 교회는 건축물인 성전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고, 신앙생활은 종교적 제식만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 조직의 문화는 더 젊고 진보적이고 덜 계층적인 관리구조가 자리 잡아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필요한 리더의 모습은 더 많은 소통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언택트(untact), 비대면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혹은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상황 속에서 동료와 단절되어 일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게 하는 것도 리더의 책임이다. 언택트 사회는 오프라인의 접촉과 대면이 줄어든 것이지, 온라인의 연결, 소통, 데이터의 연결은 훨씬 많아지는 사회다. 이전까지 전통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 즉, 팔로워에게 끼치는 영향만을 강조하는 리더십이었다. 그러나 리더의 영향을 팔로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리더십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교회에서 젊은 세대가 소통과 신뢰의 어려움으로 어른 세대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른들에게 주어진 리더십은 사라지게 된다. 일대일 관계 차원에서는 리더가 팔로워와 소통하고 위임할수 있는 양방향 영향관계까지 살펴보는 기독교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이버 시대일지라도

‘삶과의 관련성을 높이고,’ ‘상호성을 확대해야 하고,’ ‘회중의 참여도를 확대해야 하며,’ ‘다양성을 적극 허용해야 할 것이다. 비물리적인 사이버 공간이지만 회중 간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하고 선교적 공동체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 언택트 시대, 코로나19시대에 적응하는 장소성, 공간성을 찾는 방식이지만 오히려 성서적·초대교회의 패러다임을 찾아 이 시대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이자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나가면서

지금까지 연구자는 탈정상과학적 시대, 위험사회에서 교회마저 위험사회적 맥락에서 희생양화에 가담하면서 잘못된 생명정치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14-16세기의 흑사병 시대와 16세기의 종교개혁적 상황, 그리고 작금의 코로나19시대를 팬데믹 상황으로 지평융합시키고 교차시키면서 과학적, 정치적 공론장뿐만 아니라 합리성과 성찰을 제공하는 신앙적 공론장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성과 공동선에 헌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지구화는 종교가 ‘인간의 변영’에 헌신할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다원적 공론장을 지구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적 연대를 확보하는 것이 ‘코로나19’이후의 세계에서 수립해야 할 ‘뉴 노멀’ 형성의 과정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내부적 논의와 갈등에 집중하며 공론장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다 한국 사회의 공공성 의제와 연관된 공론장을 확대하고 지구화 국면의 공공신학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가 교회적 ‘공동의 선’과 사회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적,공적 영역의 교회에서 전세계적 팬데믹 트라우마 사회, 코로나 트라우마 사회에서 영광과 변영신학의 패러다임보다는 십자가와 고난의 패러다임 속에서 끈끈한 측은지심, 정을 가진 교제와 깊은 보살핌을 통한 회복탄력성과 외상후 성숙을 주는 공동체, 트라우마 사회에서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교회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기적 대책으로 코로나19의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대, 언택트 사회에서 교회의 장소성과 공간성에 초대교회의 패러다임을 회복하되 예배와 교제, 선교 사역에서의 적극적인 회복탄력성을 모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예배당의 장소성과 공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4차산업혁명시대, 언택트 사회, 코로나19사회에 적응하는 패러다임이면서 중세 가톨릭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또는 다른 종교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초대교회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배와 교제, 제자양육의 장소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 교제 및 사회 공간적 내재성, 즉 배제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안적 예배 양식을 만들고, 4차산업혁명, 코로나19시대에 적합한 아비투스(abitus)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은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해 공간성과 장소성에 기반한 예배, 교제, 제자양육, 선교를 강조하는 접근이지만 초대교회의 패러다임과 성서적 패러다임에 더욱 접근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도들의 교제는 물리적 공간과 교회건물 안 상호작용을 넘어서 새로운 다중접속의 교제로 나아가되 디지털 중재를 통해 새로운 교제, 제자도, 선교와 봉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타 잘못된 사목권력을 강화하기 보다 성도들의 만인제사장화, 신앙적 주체화를 강조하는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기도 하기에 지면관계상 논의하지 않았지만 보다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단비뉴스, 2020. 4.9일자 5면. “난 안 걸려, 아멘’ 공공성 잃은 한국 개신교.”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37>(검색일 2021.1.23)  
[“I won’t get caught, amen.’ Korean Protestants lose their publicity,” Danbi News(2020.4.9).  
Retrieved from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37> (2021.1.23.)]
- 문시영 역. (2010). 교회됨, Hauerwas, S.(1981).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서울: 북코리아.
- [Mun, S. Y.(2010).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Seoul: Bookkorea. Trans. Hauerwas, S.(1981).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Seoul: Bookkorea. Notre Dame/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홍종락 역.(2016). **한나의 아이-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Hauerwas, S.(2010). 서울: IVP.
- [Hong, J. L.(2016). Hannah’s Child: A Theologian’s Memoir By Stanley Hauerwas. Seoul: IVP. Trans. Hauerwas, S.(2010). Hannah’s Child: A Theologian’s Memoir By Stanley Hauerwas. London/ SCM Press].
- 김균진 역.(2007).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Moltmann, U.(197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Kim, G. J.(2007). Der gekreuzigte Gott—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Seoul: Korea Theological Institute. Trans. Moltmann, U.(1972). Der gekreuzigte Gott—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 김찬호 역(2012). **비통한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Palmer, P. J.(2011). 경기: 글항아리.
- [Kim, C. H.(2012).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gyeonggi: Writing Jar.Trans. Palmer, P. J.(2011).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Paperback/ Jossey-Bass, Jossey-Bass].
- Bourdieu, P. (1990).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lunt, A. &R. Dowling (2006). *Home*. Abingdon: Routledge.
- Cahalan, K. A.(2005). Three Approaches to Practical Theology, Theological Education, and the Church’s Mini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9, 67-73.
- Casanova, J.(1994).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Press.
- Dora, d. V. (2018). Infrasecular Geographies: Making, Unmaking and Remaking Sacred Sp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 44-71.
- Dewyer, C.(2016). Why Does Religion Matter for Cultural Geographers?. *Social & Cultural Geography*, 17, 758- 762.
- Duffy, E. (1992), *The Stripping of the Alters*. New Haven, CT: Yale.
- Durkheim, E. ([1912], 1995),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 Forrester, D. B.(1989). *Beliefs, Values and Policies*. Oxford: Clarendon Press.
- Habermas, J.(2002). *L'avenir de la nature humaine*. Paris: Gallimard.
- Hamdouch, A., Demaziere, C. and Banovac, K.(2017). The Socio-economic Profiles of Small and Medium-sized Towns: Insights from European Case Studie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108, 456- 471.
- Hauerwas, S.(1975).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A Study in Theological Ethics*. San Antonio, TX : Trinity University Press
- Hauerwas, S.(2003). *The Peaceable Kingdom*. London: SCM Press.
- Hunter, D. (2020), Radical Ecclesiology: The Church as an Arena for Reconciliation through Cultivating Alternative. Community.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 75-82.
- Hubschmid, H,(1997). *Der Aufschwung Europas nach dem Jahr 1000*. Zürich: Füssli.
- Kay, W. K.(2007). *Apostolic Networks in Britain: New Ways of Being Church*. Milton Keynes: Paternoster.
- Kaur, H.(2020). How religious communities are modifying traditions to prevent coronavirus spread. *CN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7 March 2020. Retrieved 17 March 2020.
- Kelly, J.(2005). *The Great Mortality. An Intimate History of the Black Death, the Most Devastating Plague of All Time*. Harper Collins.
- Küng, H. and Tracy, D.(Ed.)(1989). *Paradigm Change in Theology: A Symposium for the Future*. New York: Crossroad.
- MacIntyre, A.(1997). “Epistemological Crisis, Narrative, and Philosophy of Science,” Why Narrative?: Readings in Narrative Theology, ed. S. Hauerwas and G. Jones, West Broadway: Wipf and Stock Publishers.
-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ssey, D. (2005). *For Space*. London: Sage.

- McFague, S.(2001). *Life Abundant: Rethinking Theology and Economy for a Planet in Peril*. Minneapolis: Fortress.
- Meyer, W.(1995). Private Faith or Public Religion? An Assessment of Habermas 's Changing View of Religion. *The Journal of Religion*, 75(3), 371-91.
- Parke, C.(2020). Churches cancel Sunday service, move online amid coronavirus outbreak. *Fox New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5 March 2020. Retrieved 16 March 2020.
- Phelps, N.A. (2017). *Interplaces: An Economic Geography of the Inter-urban and Internation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eva, A.(2020). Thousands to pray at Western Wall for end to COVID-19 epidemic. *Israel National New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8 March 2020. Retrieved 17 March 2020.
- Stroope, S.(2012). Social Networks and Religion: The Role of Congregational Social Embeddedness in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Sociology of Religion*, 73, 273- 298.
- Tracy, D.(1992). *Theology, Critical Social Theory, and the Public Realm, in Don Browning and Francis Schüssler Fiorenza, Habermas, Modernity and Public Theology*. New York, Crossroad.
- Vidal, J.(2020). 'Tip of the iceberg': is our destruction of nature responsible for Covid-19? <https://ensia.com/features/covid-19-corona-virus-biodiversity-planetary-health-zoonoses/> (2020년 6월 10일 접속함).
- Vincent, P. & Warf. B.(2002). Eruvim: Talmudic Places in a Postmodern Worl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7.
- Volf, M.(2011). *A Public Faith: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 Grand Rapids: Brazo Press.
- Wright, N.T.(2020). Christianity Offers No Answers About the Coronavirus. It's Not Supposed To. *Time*, 29. <https://time.com/5808495/coronavirus-christianity>.

# 팬데믹과 개혁교회의 패러다임적 대응\*

## The paradigm's response of pandemic and reformed church

최용성 (부산대학교)

강순규 (부산대학교)

최병학 (동아대학교/교신저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위기의 시대에 개혁적 패러다임의 모색을 통해 이런 위기 시대에 교회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되어졌다. 이를 위해 흑사병·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혁명(개혁)적 과학패러다임 모색을 종교·교회개혁적 차원에서 성찰하고 종교개혁시대와 작금의 시대와의 가다머적 지평 융합적 해석학으로 성찰을 피하고자 한다. 또한 팬데믹 시대의 특수한 상황은 과학, 정치, 종교권력의 취약성 및 희생양화를 증폭시키고 과학적, 정치적, 종교적 합리성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데, 이런 탈정상과학적 상황·위험사회적 상황에서 종교·개혁적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사사화된 인습적 신앙의 패러다임에 간혀있는 개신교회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공성과 공동선을 위한 보다 개혁된 패러다임을 제시한 가톨릭의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팬데믹 시대가 14-16세기와 같이 또는 더 증폭된 형태로 전지구적인 주관적, 사회적 외상을 증폭시키는 사회라는 관점을 통해 영광·번영 복음의 패러다임을 십자가·고난 복음의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대체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과학적, 정치적, 종교적 위기 속에서 왜곡된 회복탄력성으로서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희생양화를 부축이는 것을 극복하는 진정한 십자가·고난 신학을 통한 회복탄력성이 필요함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의 시대에 교회는 코로나19의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대, 언택트 사회에서 기존의 가톨릭적·개신교적 공간성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팬데믹·초대교회·성서적 패러다임 교회 공간성으로 이동해 나아가야 할 기회가 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팬데믹, 패러다임, 공공성, 고난, 공간성